강릉원주대신문

창 간 | 강릉대신문 1979년 6월 30일 / 원주대학신문 1991년 9월 17일
재창간 | 강릉원주대신문 2009년 4월 13일
발행인 | 반선섭 **주간교수** | 김태완 **편집인** | 김혜미

TH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PRESS 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101호

2면 대학
멋과 흥이 가득한 연합축제
학습은? 학습클리닉에서!
강원도민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장학금

3면 사회
생활관 의무식 VS 선택식, 우리의 선택은?
우리 가게 'NO 탕후루존'입니다.

5면 보도
일본학과 연극 '오바이토리'
커피내음으로 가득한 강릉 커피축제

6면 인터뷰
'커피 축제' 관광경영학과 강상국 교수
'성찰에 대한 조언' 졸업생 송신규 작가

7면 특집기사
지역 발전에 중심이 되는 강릉원주대학교 '수소사업단'

글로컬30사업 선정, 강원대와 통합 확정



▲ '1도 1국립대' 추진을 위한 통합 실행합의서 서명식에서 강릉원주대와 강원대가 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사진= 강릉원주대학교 홈페이지

2023년 11월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글로컬30사업 본지정 결과 강릉원주대·강원대가 공동 혁신모델로 선정되며 두 학교의 통합이 확정되었다. '글로컬대학30'은 비수도권 대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지역의 혁신을 이끌 정도로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30곳을 선정해 5년간 1,000억 원의 재정적 지원과 대학 규제 완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전폭적인 재정지원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다. 이번 '글로컬30사업'에 선정된 ▲강원대·강릉원주대(통합) ▲한림대 ▲안동대·경북도립대(통합) ▲포항공대 ▲부산대·부산교대(통합) ▲충북대·한국교통대(통합) ▲경상국립대 ▲울산대 ▲전북대 ▲순천대 등 10개의 대학은 혁신기획서와 실행계획서를 제출해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것이다.

강릉원주대와 강원대가 제안한 '강원1도1국립대' 모델에 대한 양 대학의 구성원 투표에서 대다수가 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 선정에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2023 글로컬 대학 본지정' 발표 및 설명회에서 본지정 합격과 탈락을 가른 가장 결정적 차이에 대하여 글로컬대학위원회 관계자는 추진계획의 적절성, 성과관리의 적절성, 지자체 지원 및 투자계획 위주로 평가되었으며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을 가장 중요하게 봤다고 전했다. 또한, 어떤 대학이 가장 빠르게 문제없이 임팩트 있게 추진할 수 있는지, 대학 사회에 가장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킬지가 중심이 되었으며 '혁신'이 주요평가로 작용했다고 하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고 투입에 대해서는 매년 200억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대학의 추진 과제와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성과가 미흡하면 국고를 끊을 수 있고, 필요하면 사업비 환수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통폐합을 신청한 강원대-강릉원주대, 부산대-부산교대, 안동대-경북도립대, 충북대-한국교통대는 1년 안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립강원대학교'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통합 일정

우리대학 반선섭 총장은 글로컬대학 발표 직후 서한문을 통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우리 대학교는 장장 9개월에 걸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앞으로 우리대학이 글로컬 사업을 얼마나 성실하게 실행할 것인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따라 그 성과가 지속 가능한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려줄 것입니다."라며 "제출된 사업계획서에는 정부가 수용하기 곤란한 규제개혁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 글로컬 수정계획서 작성을 통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종 지정 대학은 내년 2월까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세부 추진 계획을 보완하고 매년 성과 점검을 받게 되며 2025년과 2027년에 중간·종료평가를 각각 실시한다.

그리고 반선섭 총장의 서한문에 따르면 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통합 일정에 대해서 2026년 3월 1일자로 통합을 이루어지며, 교명은 국립강원대학교로 한다고 하였다. 글로컬 사업은 2027년에 종료되기 때문에 통합 전의 대학으로 2년 3개월 동안 사업을 진행하고, 남은 2년은 강원1도1국립 통합대학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총장의 임기가 2024년 2월 20일이면 종료되는 만큼, 캠퍼스 특성화나 학사구조, 재정 배분 방법, 인사권의 범위 등 유동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후임 총장의 협상력과 교섭력에 달려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임기 종료 전까지 글로컬30사업과 정문 정비사업, 컨벤션센터 신축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 및 나머지 학사일정에 대해선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간의 성원과 도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대해 저를 믿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신 점에 대해 대학 구성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하였다.

통합 이후 지역특성화로 이루어지는 발전

한편 강릉원주대와 강원대는 춘천, 원주, 강릉, 삼척캠퍼스를 각각 특성화하여 지역 수요 중심의 강원도 고등교육 재구조화 시스템을 완성할 예정이다. 유상권 기획처장은 "글로컬30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학령인구감소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대학의 운영, 지역인구소멸에 대한 대응과 지역사회발전이다. 사업비를 통해 양질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우수한 인재 육성 및 배출을 통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첨단기술개발과 인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우리대학 지역 인근의 사립대와 교육과목의 공유도 이루고, 강원도의 고등교육까지 책임지는 것이 목표이다."라며 지역 전략사업을 확대를 통한 효과와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글로컬30사업 첫 지정 통합 대학으로서 주어진 숙제라고 볼 수도 있다.

아울러 통합 완료 시 캠퍼스 간 원활한 교류를 위해 고도화된 원격교육시스템을 확보를 통해 양 캠퍼스 간의 이질감을 최소화 할 예정이며, 학생의 교육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첨단 강의실, 국제협력센터, 현장체험센터, 교육창업기업체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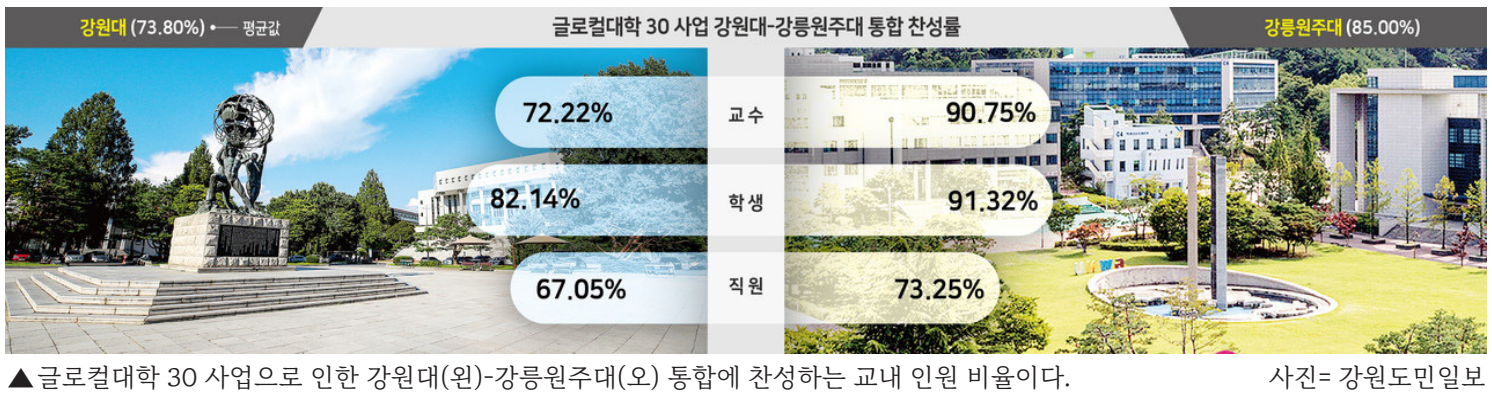
학과 통폐합에 대처하는 모습

앞선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이후 실시되었던 설명회에서 "강원대와 통합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과는 학사 구조상 공존할 수 없는데, 법학과가 폐지된다면 남은 학생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라는 재학생 질문에 유상권 기획처장은 "관련 법령 유권 해석상 우리 대학과 강원대학교가 통합된다면 법학과는 폐지해야 한다. 다만 법학과로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법학과는 존속이 가능하며, 학생이 원한다면 다양한 이수제도(마이크로 디그리 등)를 통해 졸업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학과 통폐합에 대해 관심도가 높은 채희빈 학우(법학과)는 "학교 측에서 사업이 확정되기 전부터 그저 논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통폐합되는 학과와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학교 통합은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학생들에게 충분히 이 사안을 설명하고,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상황에 대해 정확한 인지를 하지 못한 학우들에게 상황을 알릴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렇듯 글로컬30사업 선정은 우리 대학과 그 구성원인 학생, 교수, 직원 모두에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추진과정과 결과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으며 그 진행과정에서의 소통에 대하여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대와의 통합과 그 협상과정에서 우리 대학 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소통해나가며 담대한 혁신을 이뤄나가길 기대한다.

김혜미 기자



▲글로컬대학 30 사업으로 인한 강원대(왼)-강릉원주대(오) 통합에 찬성하는 교내 인원 비율이다. 사진= 강원도민일보

멋과 흥이 가득한 단과대학-총동아리 연합축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여가 지나면서 우리 대학 해람문화관 앞에 여러 학생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가을을 맞이하여 강릉캠퍼스 7개 단과대학과 총동아리연합회가 연합축제를 열었다. 이번 축제에서 축제준비위원장을 맡은 유혜인 인문대학 학생회장은 “단과대학이 함께 모여서 여는 행사로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대면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뜻깊게 다가온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은지 학우(중어중문학과)는 “단과대 연합축제를 통해 많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고, 평소에 볼 기회가 잘 없던 사람들과도 부스를 준비하면서 교류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10일 열린 이번 연합축제는 9월 28일부터 시작한 추석 연휴와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하여, 사극과 민속 문화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날 축제장에서는 우리나라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다니는 축제준비위원회 학생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민속놀이, 나만의 부채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부스 운영

이번 축제는 오전 11시부터 각 단과대학별 체험 부스와 총동아리연합회, 타로 부스(외부업체)가 운영되었다. 먼저 만들기 체험 부스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민속놀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부스를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팔각등 만들기,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할 수 있는 실 팔찌 만들기, 산수화나 원하는 그림을 미술용 부채 위에 그려 넣는 DIY 부채 만들기, DIY 옥가락 반지 만들기, 복불복 랜덤 탁구 랠리, 날아라 짚신, 비석치기 등을 체험할 수 있었다.

김나현 학우(국어국문학과)는 인문대학 팔각등 만들기 부스를 운영하면서 “직접 색칠하고 조립하는 과정이 오래 걸려서 대기하는 시간이 길고 지루했을 것인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체험하러 와서 뿌듯한 마음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리고 양지용 학우(대기환경과학과)는 “이제 좀 있으면 졸업인 학우들도 있는데, 졸업하기 전에 여러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면서 “이번 축제를 기회로 많은 학우들이 친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해람문화관 앞마당에서 직접 팔각등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김동주

눈과 귀가 즐거운 연합축제 공연

해람문화관에서는 오후 6시부터 공연이 진행되었다. 공연에는 춤과 노래에 끼가 넘치는 학생들이 많은 관중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재능을 선보였다. 발라드부터 힙합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되었다. 특히 우리 대학 댄스 동아리 ‘DMA’ 등의 공연은 절로 응원의 한마디를 하게 만들었다.



▲ 우리 대학 남녀 혼성 댄스동아리 DMA가 노래에 맞춰 춤을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사진= 김동주

다양한 먹거리와 놀거리가 풍성한 연합축제

축제의 재미를 한층 올려줄 수 있게 푸드트럭이 도착했다.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는 먹거리는 보는 사람들의 입맛을 자극했다. 또한, 저녁 시간 동안 체육관 뒤뜰에서 자율 행사가 진행되었다. 자율 행사에는 축제준비위원회가 사전 배포한 팸플릿의 8개 부스 참여 도장을 모두 받아온 20명에게 마패를 제공해 뒷풀이 행사의 우선 입장 혜택을 주었다. 이날 학생들은 달빛이 비치는 예쁜 조명 아래 학우들과 우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김동주 기자

학습은? 학습클리닉에서!

영어, 수학, 글쓰기 등 학습 지도 프로그램 제공

대학은 학문의 요람으로 학생들에게 도전에 대한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니 고등학교 때까지 쌓아온 학습 습관을 향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 교육 과정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학습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학생들은 자신들의 기초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하여 사교육비를 지출하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대학에서는 재학생들에게 교육 과정 이수에서 필요한 기초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학습클리닉’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혼자 공부하다 막히면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다.

학습클리닉은 매 학기(동계 • 하계 방학 포함)에 혼자 공부하다가 막힌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중 상시 운영 중이다. 클리닉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전문 튜터를 매칭하여 학습을 지도해 주고 있다.

학습 지도를 제공하는 분야는 ▲글쓰기(창의적 사고와 글쓰기와 연계하거나 자기소개서 등 글쓰기 첨삭 지도), ▲영어(독해, 영작, 문법), ▲기초교과목(물리, 화학, 수학) 등에서 1:1 학습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학습클리닉을 이용하려면 신청자가 학습 지도를 원하는 분야 및 튜터를 선택 후 최소 2일 전에 사전 예약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튜터의 승인 후 예약이 확정되면 신청자에게 예약완료 문자가 발송된다. 그런데, 만약 사전 예약 및 확정 후 결석(No Show)한다면, 한 달간 클리닉 이용 자격이 정지된다.

학생 튜터도 모집, 소정의 지도비도 지급

학생 튜터도 매 학기 모집하고 있다. 모집 분야는 ▲기초 수학 ▲기초 물리 ▲기초 화학 세 가지 분야에서 선발한다. 튜터 선발 대상자는 2학년 이상 직전 학기까지 누적 평점 3.0 이상 관련 교과목 A0 이상 성적을 받아 학과장의 추천이 있는 학생을 튜터로 선정하고 있다. 대상은 학부생, 대학원생으로 5명 내외로 선발하고 있다. 2023학년도 2학기에는 6명의 학생 튜터들이 활동하고 있다.

튜터가 학습자의 학습 수준에 따라 맞춤형 지도

튜터의 학습 지도를 경험한 학생들은, 혼자 하는 공부는 비효율적인 시간 관리와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실패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런데 클리닉을 통해 도움을 받으면서 튜터가 오로지 나에게 집중해, 공강 시간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 시간표는 어떻게 구성해야 학습 능률이 올라가는지 종합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줘서 학교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습클리닉은 평일 9시부터 22시(대면 교육은 18시까지)로 지도 시간은 1시간 단위로 끊어서 운영하는데, 실제 지도 시간은 최소 30분에서 50분 사이로 운영된다. 영어 회화의 경우 30분 단위로 끊어서 운영하지만, 실제 지도 시간은 15분 내외이다. 클리닉 운영 회차는 하루 8회차이며, 영어 회화의 경우 16회차로 운영되고 있다. 학습 지도 신청 시 신청자가 지도받고자 하는 자료를 사전에 필수적으로 올려야 체계적인 지도가 가능하다.

학습클리닉은 우리 대학 학생들이 학교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기 위한 기초 학습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학생들이 효과적인 학습법을 체득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달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우리 대학이 운영하는 학습클리닉은 앞으로 학생들이 커다란 학문적 성과나 취업 등의 목표를 이뤄내는데 긍정적인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주 기자

강원도민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장학금

월세와 생활비는 대학생이 자취생활을 하면서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이다. 많은 학생이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여 피로도가 누적되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매년 2학기에 걸쳐 100만 원의 장학금을 강원도민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주거비 장학금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도내 고교를 졸업한 자로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시 · 군) 이외의 도내 대학 재학생
2. 본인 또는 보호자가 강원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자
3.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하인 자
4. 직전 학기 성적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인 자
5.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대학교 소재지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인 자
6.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선발 공고일 이전부터 12월까지 연속된 자

쉽고 간단한 장학금 신청 방법

장학금은 4월과 9월에 신청할 수 있다.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에 들어가 인재육성▶장학금 지원▶장학사업 한눈에▶주거비 장학금 순서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조건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과 주민등록본 및 8개의 서류들을 PDF 파일로 통합하여 마감 기간까지 제출하는 것이다. 만약 동점자가 나오면 성적 우수자와 다자녀 가족, 장애 또는 위탁 가정을 우선순위로 둔다. 이럴 때는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면 개별 문자와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발 결과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학금에 대해서 학생들은 알고 있을까?

장학금의 존재에 대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신청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우들을 찾아 물어보았다. 황현후 학우(경영학과)는 “주거비 장학금에 대해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자세히는 모른다.”라고 답했다. 최태림 학우(조형예술디자인학과)는 “예전에 친구와 동거할 때 친구가 신청하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무엇을 하는 것인지는 자세히 모른다.”라고 답변했다. 강원도 학생들로 대상을 제한시켰지만, 매년 신청자가 300명을 넘기지 못하거나 간간이 넘기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장학금 수혜 후 풍족해진 학교 생활

주거비 장학금을 4년째 받고 있는 가톨릭관동대학교에 재학 중인 송준형 학생은 “주거비 장학금을 수여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쉽게 월세 비용을 모을 수 있었고, 생활비 측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소 이전 지원금과 주거비 장학금을 비교했을 때 “편리한 것은 주소 이전 지원금이지만 지원받는 비용을 생각했을 때는 주거비 지원금이 더 많으므로 주거비 지원금을 선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본 기자도 주거비 장학금을 받고 나서 생활비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처음 자취를 시작할 때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주거비 장학금을 받고 나서부터는 돈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었고, 학업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비슷한 듯 더 복잡한 장학금 제도

주거비 장학금 외에도 대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많은 장학금 제도가 존재한다. 그중 용복장학회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최대 100만 원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직전 학기 학점이 3.7 (4.5 기준) 이상인 재학생으로 추천인 자격이 필요하다.

장학생 신청을 위해서는 지원서 및 12개의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용복장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용복장학회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은 주거비 장학금에 비해 제출서류도 많고 우편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접수 과정 또한 까다로운 편이다. 주거비 장학금은 온라인 접수라는 편의성을 갖고 있고, 용복장학회보다 서류 수가 많지 않다.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좋지만, 강원도민 학생이라면 쉽고 간단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비 장학금 제도를 이용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김도현 기자

생활관 의무식 VS 선택식, 우리의 선택은?

생활관은 학생의 대표적인 복지시설로 잠자리와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의 약 30%의 인원이 이용하고 있다. 대학 측에서는 학생에게 편안하면서도 안전한 생활관 서비스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공동생활을 하는 많은 인원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불거진 '생활관 식권 판매'와 '선택식 및 의무식 선택'에 대하여 학생 간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어떠한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생활관 식권은 판매할 수 있는가?

원주 생활관 입주 시 중·석식비를 입주비용과 동일한 시기에 납부하고 이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전달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 학교 에브리타임에서는 '식권게시판(원주)'라는 게시판이 별도로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식권 판매가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생활관 규칙 제8조에 의하면 '외부인의 조식은 절대적으로 금하며, 적발 시 식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생활관 식권의 양도는 금지되어 있다. 생활관 식당에서 식사 하지 않는 학생들이 본인의 식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규칙을 위반하는 일이지만 암암리에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관행에 대한 학교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차원에서의 제재가 강화되자 불만을 가진 일부 학생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학교의 식권 강매 및 판매 제재" 명목으로 민원을 접수하며 의견 대립의 심화는 더욱 커졌다.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답변으로는 "직접적인 권한이 없어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등의 진행은 어려우나,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기숙사 비용과 식비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청구하는 방식에 대해 시정 명령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피해 구제 등 분쟁 조정과 관계없이 특정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요구하고자 한다면 사업자의 법률위반행위 등의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길 바란다."라고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대신,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식권 끼워 팔기' 개선 권고를 내린 것을 언급하였다.

의무식과 선택식은 무엇인가?

이와는 별개로 생활관 식사 운영방식에 대한 논란도 이번에 문제화되었다. 의무식은 생활관에 입실하는 것과 동시에 식사를 구내식당에서 먹어야 하는 것으로 생활관 입실과 함께 학기당 식사비를 한꺼번에 납부하고 식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선택식은 생활관생이 필요에 따라 구내식당에서 식권을 구입해 식사하는 제도이다. 의무식은 식당의 식수 인원 수요예측을 적정하게 하여 식사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환불의 문제가 존재하며, 선택식은 식사에 대한 자율권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상대적인 식사의 질 저하, 가격 인상의 문제점이 있다.

2012년 성균관대학교는 생활관 거주 학생에게 월 60식(1식 2,500원)을 의무 구입하도록 했으며, 식비를 선납하지 않은 학생은 생활관 입사 자격이 박탈당했다. 한 생활관생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위와 같은 상황을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성균관대에서 의무식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일이 생활관 의무식 논란의 대표적 사례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대학교육연구소는 대학 기숙사가 3식을 강제하는 것이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였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외부 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이 하루 세 끼의 식사를 모두 기숙사에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 보장 없이 입사 시 1일 3식의 의무 식비를 징수하는 것은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하는 부당한 기숙사비 징수다."라고 밝혔다. 이에 영향을 받은 동아대와 건국대 역시 의무식을 폐지한 뒤 자율 선택식으로 변경한 바 있다.

한편, 제주대의 경우 입사 학생이 100명밖에 되지 않아 의무식을 폐지하게 되면 생활관 식당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 2013년 제주대에서는 "전국에서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만약 의무식을 폐지할 경우 한 끼의 가격이 올라 오히려 학생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라며 "40%에 가까운 학생들이 의무식 유지를 원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우리 대학 원주 캠퍼스 생활관 수용인원 역시 620여 명으로 700명도 채 안 되는 것을 보아 선택식 도입 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 대학들이 의무식을 폐지하려 할 때 넘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식당 운영 업체와의 협력'을 지목했다. 타 대학과 협력 중인 중소 급식업체는 "학생들은 의무식 폐지를 주장하지만, 생활관 식당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외부 업체는 십중팔구 이에 난색을 보여 학교 입장도 어려웠다."며 "식사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업체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의무식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기 어려운 이유는 최근 많은 대학이 기숙사를 BTL(Build Transfer Lease · 민간투자) 방식으로 짓기 때문이다. 이처럼 저렴한 식비와 자율을 원하는 학생들, 운영에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입주 기업, 학생들의 편의를 대변하며 기업과 협상해야 하는 대학 사이의 의견 대립 조율은 쉽지 않다.

의무식과 선택식의 옳은 선택은?

2012년 대학교 생활관들의 '식권 끼워팔기' 관행에 제동을 걸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2016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개정하면서 의무식 제재에 있어 입장을 바꾸기도 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학생은 단체로 식권을 살 경우 더 저렴한 가격에 식사할 수 있다며 의무식 방침을 지지하는 경우도 있어 심사숙고한 끝에 올해 1월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 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서강대는 두 차례에 걸쳐 생활관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의무식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주장했으며 인하대는 2015년 공정위 권고를 받아들여 잠깐 자유식으로 전환 시행했으나 이후 공정위의 지침이 개정되면서 다시 의무식을 부활한 바 있다. 강원대는 현재 생활관 급식을 1일 1식 혹은 1일 2식으로 선택 후 입사하도록 하는 선택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일 식사는 1일 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전국의 주요대학 생활관 식사제도는 하나의 통일된 형식이 아니라 '의무식 → 선택식 → 의무식으로의 변경' 등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변경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생활관 입주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그만큼 다양하며, 학생들 역시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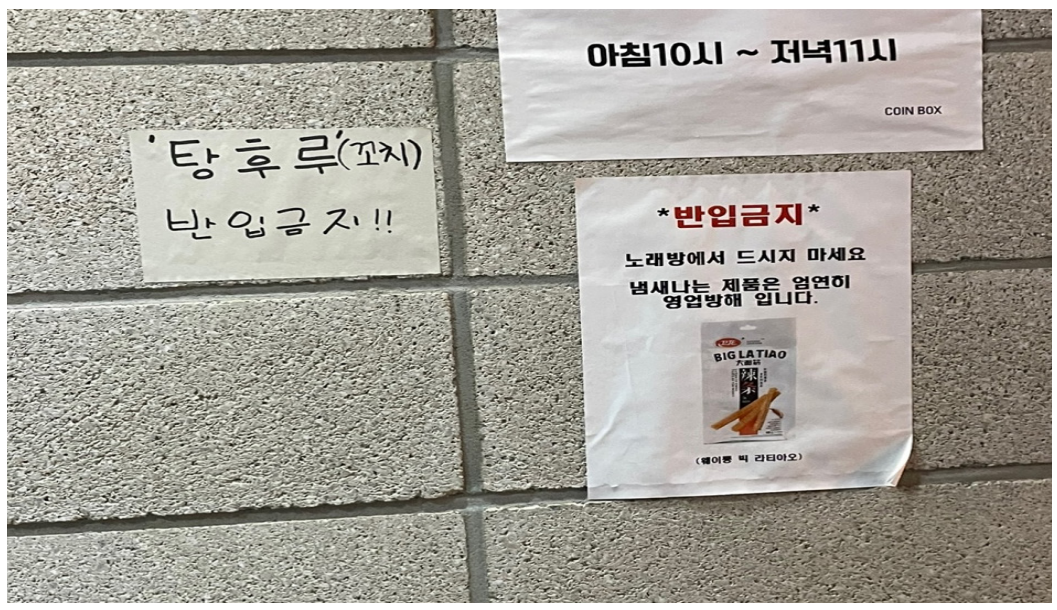
학생들을 위한 해결방안 마련 시급

선택식과 의무식 시행 시 수반되는 여러 방면에 대해 강릉캠퍼스와 원주캠퍼스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원주캠퍼스 생활관 측 문의 결과 "관생들에게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문제해결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이다."라는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강릉캠퍼스 생활관 측에서는 "강릉생활관에서도 내부 설문조사 시행예정이다. 다만, 원주생활관과는 별개로 독자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캠퍼스별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전했으며 의무식과 선택식 운영 방식의 장단점과 식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매식 선택식 시행 시 기존 한 끼에 3,100원이었던 식사 가격이 5,500~6,000원 정도로 가격 인상이 될 수 있다. 더 자세한 장단점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더 잘 느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강릉캠퍼스에서는 모바일 학생증 인증으로 출입제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식권 양도는 잘 일어나지 않는 편이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이 종료된 직후 줄곧 생활관 식당을 이용한 김한희 학우(국어국문학과)는 "선택식 시행 시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선택식 도입을 원한다는 입장이다. 1일 2식을 모두 챙겨 먹기 힘들어 이용하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크다."라며 실제 이용 중인 학우의 입장에 대해서도 들어보았다.

각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옳다는 결론은 내릴 수 없다. 다만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들으며 소통하고, 학생들은 본인의 목소리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호소통을 통해 변화하며 나아지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김혜미 기자

우리 가게 'NO 탕후루존'입니다.



▲노래방 출입문에 붙어있는 "탕후루 반입금지" 문구가 눈에 띈다. 사진= 전재

마라탕 열풍 이후 또 다른 열풍인 탕후루 열풍이 불고 있다. 젊은 층에 특히 인기가 많은 '탕후루'에 따른 문제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쓰레기 처리 문제이다. '탕후루'는 뾰족한 꼬치에 물엿이나 설탕으로 코팅한 과일들을 꽂는 음식인데, 먹고 나서 이 꼬치는 공중화장실 쓰레기통, 코인노래방 쓰레기통 등에 무분별하게 버려진다. 탕후루 섭취 후 발생한 쓰레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상의 문제이다. 버려지는 뾰족한 꼬치는 비닐을 뚫고 손을 찌를 위험이 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미화원분들은 어떨까. 쓰레기를 치울 때마다 뾰족하게 튀어나온 꼬치로 인해 노심초사 업무를 하게 된다.

안전 문제 외에도 쓰레기를 거리에 버리는 행위로 인해 미관상의 문제도 발생한다. 특히, 탕후루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끈적한 막대에 붙은 설탕으로 인해 개미와 날파리가 유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더해, 탕후루를 다른 가게로 들고 와서 섭취한 뒤 쓰레기통에 설탕 시럽이 묻어있는 탕후루를 그대로 버리는 손님들이 있다. 그로 인해 "NO 탕후루" 문구가 붙어있는 상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탕후루의 설탕 시럽이 녹게 되면 휴지통 주변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다. 'NO 탕후루 존'을 선언한 상점 상인분을 인터뷰 하기 위해 강릉 시내의 한 코인노래방 업주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업주 측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Q: 탕후루 반입으로 인해 어떠한 부분이 업장에 가장 불편함을 줬는가?
A: 일단 설탕이 가장 문제다. 마이크와 바닥에 묻은 설탕은 닦아도 끈적함이 사라지지 않는다.

Q: 탕후루 문제를 지적하는 여론이 많았다. 'NO 탕후루존' 문구를 기재한 뒤 변화가 있는가?
A: 문구를 기재한 뒤부터는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로 인해 어제, 오늘 불편을 겪었다.

Q: 주로 탕후루를 반입하는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가?
A: 주로 초, 중학생 친구들이 많다.

Q: 꼬치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는 없었나?
A: 직접 쓰레기를 치우지 않지만, 아르바이트생들은 충분히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뷰 내용처럼 탕후루 섭취 후 발생된 쓰레기는 많은 부분 불편을 주고 있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 탕후루의 막대가 가장 큰 문제다. 비슷한 음식의 사례를 보자. 오랜 인기 간식인 어묵도 마찬가지로 꼬치에 꽂아 먹는 음식이지만 문제점은 대두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음식 섭취 후 꼬치의 대부분을 그 자리에 두고 가 쓰레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탕후루의 경우도 강제성은 없지만 섭취 후 가게 측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방법이 있지만 결국에는 시민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본인이 먹은 음식물의 쓰레기는 스스로 책임지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탕후루 꼬치의 날카로운 부분과 시럽이 묻은 부분을 휴지에 감싸서 버리는 등 타인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한다.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하지만 수거가 용이할 수 있도록 쓰레기를 안전하게 버리는 등 작은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타인을 향한 최소한의 배려를 실천해야한다.

전재강 기자

사 설

관심과 소통의 부재가 빚은 오류

2023년은 정말 다사다난한 해였다. 학기가 시작하고 학생들의 첫 행사인 MT에서의 장기자랑 문제, 강풍으로 인한 산불과 교내 시설 파손, 여러 리모델링에 따른 학생들의 불편 등 많은 사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사건들뿐만 아니라 학내에 일어나는 변화들은 크고 작은 불만을 토로하게 하였고, 그럴 때마다 소통의 부재에 대한 해결이 절실해졌다. '소통'이라 함은 '대화'와 달리 '뜻이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라는 뜻이 있다. 즉, 대화하더라도 뜻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 잦은 대화에도 얼마든지 소통 부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내에서는 변화에 대한 대화의 장이 마련되지 않으니 소통의 부재는 한참 뒤에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 변화에 관심이 없으니 대화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예로 정문 개선 사업에 관한 기사가 발행될 당시 정문 개선 사업의 실행 여부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대다수였다. 더불어 올해 이러한 학교의 외적인 변화와 함께 내적인 변화에도 관심 부족과 함께 어리석은 결정들이 겹쳐 경악스러운 일 또한 벌어졌다. 학생의 의사를 반영시켜 우리를 위한 대학을 만들어 갈 총학생회 선거가 투표율 미달로 인해 개표조차 하지 못하고 끝난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이자 힘인 선거에서 기권표로 권리의 행사가 아닌 권리를 포기해버린 것이다. 양 후보진 간의 갈등과 그로 인해 빚어진 문제들을 보고 내린 결정이라고는 하나 정작 선거의 핵심을 잊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선발된 후보의 정책 수행을 용인함으로써 분열을 막고 평화로운 내적 변화를 가능케 할 선거의 기능을 말이다. 여기서 정책 수행은 당선된 후보의 공약 이행을 말하는데, 그 공약 자체가 없어진 현재 상황이다. 그렇다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임시 조직으로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 원주 캠퍼스의 보건대학과 강릉 캠퍼스의 인문대학 등 여러 단과대학 학생회의 공석, 총대위원회의 공석으로 인해 비상대책위원회 편성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토록 많은 학생대표기관의 성립되지 않는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내적 변화에 대한 무관심에서 온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이 같은 무관심은 다가올 글로컬30사업과 RIS 사업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질 여러 혜택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무관심'이라는 단어를 거듭 강조하여 과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 그러나 다수가 모인 집단인 우리의 대학에서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다 귀 기울여 듣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그것을 대변하기 위한 총학생회가 구성되지 못한 것은 더 암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개의 대학이 통합하는 자리에 우리 학교를 대변할 주체가 없다는 하나만으로 말이다. 지금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선택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이상의 책임이 따라올 것이다. 하지만 대학 내 투표뿐만 아니라 내년에 진행될 총선과 더불어 앞으로 수많은 선거를 통해 1년에서 3년이 아니라 더 긴 기간 본인과 더불어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이 함께 책임져가는 선택을 해야 할 우리이다. 그러니 사회에 온전히 나가기 전에 대학에서 사회의 축소판을 경험하며 앞으로 겪게 될 기쁨 혹은 상처에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길 바란다.

학내신문 구독률 증진을 위해



▲ 신문사 기자들이 학내신문을 홍보하기 위하여 행사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 김혜미

지난 10월 17일 맑고 화창한 날씨 속에 신문사 구독률 증진을 위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학내 신문 어디까지 알고있니?"라는 프로그램명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언론원의 신문사 활동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정보 제공과 홍보 목적으로 기획이 이뤄졌다. 학내 신문에 관련된 문제 풀이와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을 증정하였으며, 신문사로 유쾌하게 3행시를 한 학생들은 추첨 기회를 추가로 가지기도 하였다. 가방, 영화 상품권, 카페 상품권 등 준비된 상품목록과 간단한 참여방식으로 많은 학생들이 북적이는 모습이 펼쳐졌다.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강릉원주대 신문을 이용해 본 횟수'에 대한 질문에는 1회 미만~2회 이상에 응답한 학생이 90%에 달했으며, '현재 강릉원주대 신문이 구비되어 있는 위치 및 장소를 알고 계시나요?'라는 질문에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67.7%, 모른다는 응답이 32.3%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답변들은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학내신문에 대한 인지도와 관심도를 더 끌어내야 할 필요성을 보이는 결과였다.

이에 구독자 입장인 학생들이 바라본 학내 신문 홍보 방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준비한 문항인 '강릉원주대 신문 홍보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 'SNS 계정 운영(44%), 에브리타임에 요약 글 및 홍보 게시(22%), 매 호 독자에게 추첨을 통한 선물 제공(17%), SMS 문자 알림 발송(16.4%)' 순서로 각기 다른 응답을 보였다.

또한, '강릉원주대 신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코너'에 대한 질문에는 네 컷 만화(30%), 십자말풀이(24%), 한 컷 속으로(18.8%), 사설(11.5%), 문학의 길(10%), 멍석(4%) 순서로 나타났다. '네 컷 만화'는 환경문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몇 컷의 만화로 간단하게 소개하는 코너이다. '강릉원주대 신문 기사에 실렸으면 하는 내용 혹은 본인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학내 기사 주제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학교 소식, 취업 관련 소식, 기숙사, 장학금, 학교 공사' 등 학교에 관련된 내용과 '스포츠, 강릉 명소, 지역문화, 경제 이슈'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이는 학생도 많았다. 이처럼 학생들의 관심도를 파악해 더욱 흥미로운 신문을 만들어 알린다면 좋을 것이다.

우리 대학 언론원 신문사는 직접 신문 기획부터 취재 및 기사 작성, 편집까지 많은 경험을 쌓으며 배우는 기회의 장을 제공해 준다. 신문사 기자들이 쓰는 강릉원주대 신문은 어느덧 101호에 접어들었고, 현재 1년에 3·6·9·12월 총 4번 발행하여 학교 곳곳에 배치하고 있다. 이렇듯 학교의 다양한 소식과 사회적 이슈에 항상 귀 기울이면서 노력으로 만들어낸 학내 신문에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혜미 기자

가까운 곳에서 알아보지 못했던 우리들의 보물 선교장

강릉의 보물, 선교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운정길 63에 위치한 선교장은 지방 명문으로 알려진 효령대군의 11대손 이내번(1703~1781)이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살기 시작하여 대대로 후손들이 거처했던 고가로 1967년 4월 20일 국가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집의 구조는 열화당·안채·동별당·활래정 등 4채가 있다. 첫째로 소개할 공간은 열화당이다. 열화당(悅話堂)은 남자 주인이 전용하는 사랑채로, 1815년(순조15년) 이후(李厚, 鰲隱處士)가 건립한 건물이다. 건물 이름은 도연명(陶淵明)의 「귀거래사 野去來離)」의 구절에서 연유하였는데 "삼 형제가 늘 열화당에 모여 정담을 나누고 싶다.[悅親戚之情話]"는 의도를 담고 있다. 즉 '전주 이씨 일가친척이 이곳에서 정담과 기쁨을 함께 나누자'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다. 이곳엔 가운데 식재되어있는 배롱나무가 방문객을 반겨준다.



▲사랑채 건물 뒤 소나무의 모습이 푸른 하늘과 어우러져 한껏 아름다움을 더했다. 사진= 전재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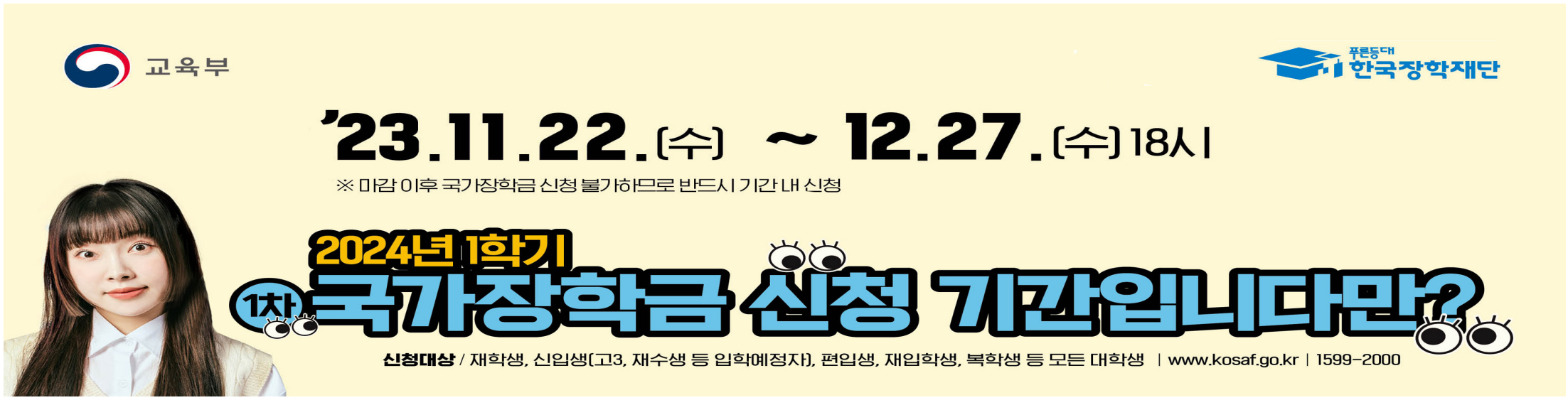


▲열화당 정원의 모습, 마당 한 가운데 식재되어있는 배롱나무가 인상적이다. 사진= 전재강

다음은 활래정이다. 활래정은 대문 밖인 선교장 입구에 있는 큰 연못 옆에 세워진 정자로, 연못 속에 돌기둥을 세워 주위에 난간을 돌렸으며, 팔각지붕에 겹처마 형태의 납도리집이다. 시민들이 이런 정취를 더욱 가까이 느껴볼 수 있도록 한옥스테이도 진행 중이며 중사랑, 홍예헌1관, 전통문화체험관 등에서 1박 2일 동안 고가의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다.

한옥스테이가 가능한 명품고택으로 지정된 서별당은 오색창연한 한옥의 멋을 느낄 수 있는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다. 내부는 현대의 모습을 갖추면서도, 우리 전통의 고풍을 느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사진으로 담을 수 없는 우리나라 고가의 전통미를 간직한 선교장, 가까이 있어 찾지 않았지만 쉬는 날 연인이나 가족들과 발걸음 해본다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 자신해 본다.

전재강 기자



가장 빛이 났던 일본학과 연극 '오바이토리'

올해 11월 16일 일본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제9회 〈전국 대학생 일본어 연극대회〉가 막을 열었다. 일본학과는 우리 대학 대표로 참여하게 되면서 학교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되었다. 대회에서 수상하면 일본 외무성의 청소년교류사업인 '아시아태평양지역과의 청소년교류'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일본방문 프로그램 참가 자격과 소정의 격려금을 받는다. 4번으로 참가한 '오바이토리'는 쟁쟁한 경쟁팀들을 제치고 당당히 대상을 받음과 동시에 부상으로 일본 유학 참가 자격과 격려금 100만 원을 받았다.



▲해람문화관에서 일본학과 오바이토리가 연극대회를 위한 연습을 하고 있다. 사진= 김도현

대회에 나가게 된 작품은 『日本語「私」辞典』(일본어 나 사전)이다. 위 작품은 일본의 〈젊은 연출가 콩쿠르 2011〉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이다. 주인공인 '나'라는 존재가 매일 아침 만나는 스토커를 없애기 위해 매일 밤 히라가나를 지우게 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스토커를 없애기 위해 'す(스)'를 지웠지만 정작 사라져야 할 스토커는 그대로 남아 있고 'す(스)'가 들어간 의자(いす)가 사라진 것이다. 지도를 맡은 일본학과 박종승 교수는 이 작품을 선정한 이유로 "코로나로 인해 사라진 일상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연출을 맡은 함석원 학우는 "각색하는 대신에 원작의 느낌을 최대한 살려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본래 2시간짜리의 분량을 30분으로 줄이면서 많은 부분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장면전환이 많아 흐름을 한 번 놓치면 따라가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관객들에 대한 주의와 당부도 전했다.

일본학과 학생들은 인문대 강의실에서 주로 기초 연습을 한 뒤 대회를 앞두고 해람문화관에서 본 공연처럼 연습했다. 이 과정에서 연출을 비롯해 스태프들과 배우들은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리허설을 해보는 등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다. 박종승 교수는 "원어 연극제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연습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대사까지 듣고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일본어 연습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연습 과정에서 발음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일본학과 대표로 함석원 학우와 김나리 학우가 대상을 수여받고 있다. 사진= 김도현

수상 결과가 발표되자 일본학과 학생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신기해하며 자신들의 대상 수상 소식을 믿지 못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함석원 학우는 "처음 목표는 꼴등만 하지 말자는 것이었는데 1등을 하게 되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정말 황홀한 기분이었고, 나의 지도를 잘 따라준 배우들과 스태프분들께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부 연출을 맡게 된 김나리 학우는 "우선 대상 수상 소식이 너무 믿기지 않는다. 배우들이 대부분 신입생이라 원어로 연기하기에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다들 너무 열심히 해줘서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박종승 교수님, 오부치 히토미 교수님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를 전한다."라고 했다. 주연 배우를 맡았던 최지현 학우는 연습 당시에는 "처음 목표가 중간 이상을 하는 것이었지만 연습했던 것만큼의 결과가 나와 1등을 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나중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서 행복하다."라며 1등 수상의 소감을 전했다. 그 후 "연습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었지만 다 같이 격려하고 북돋아 준 스태프와 동료 배우들에게도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지도를 맡은 박종승 교수는 "원어 연극제가 코로나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지도교수인 나를 잘 따라와 줬기 때문에 이런 1등이라는 커다란 상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수상소감과 학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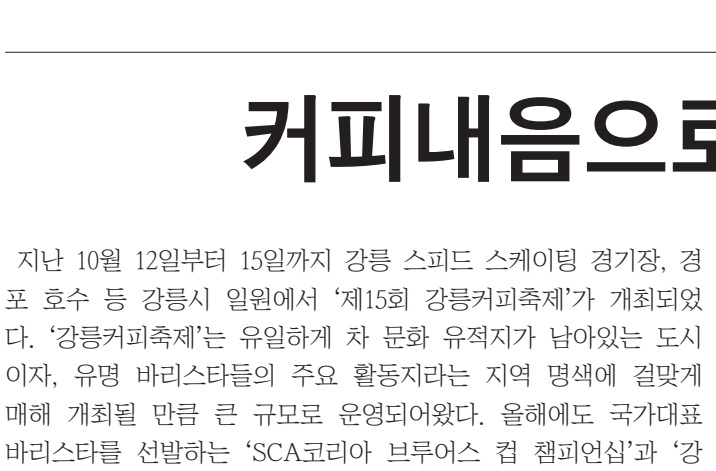
▲대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일본학과 학생들과 박종승 교수가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김도현

〈전국 대학생 일본어 연극대회〉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된 '오바이토리'. 그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실은 일본학과와 우리들의 자랑이자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이어질 그들의 도전과 노력을 응원한다.

김도현 기자

커피내음으로 가득한 강릉 커피축제 속으로

지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경포 호수 등 강릉시 일원에서 '제15회 강릉커피축제'가 개최되었다. '강릉커피축제'는 유일하게 차 문화 유적지가 남아있는 도시이자, 유명 바리스타들의 주요 활동지라는 지역 명색에 걸맞게 매해 개최될 만큼 큰 규모로 운영되어왔다. 올해에도 국가대표 바리스타를 선발하는 'SCA코리아 브루어스 컵 챔피언십'과 '강릉 핸드드립 커피 어워드', '강릉 바리스타 어워드', '100인人100味 바리스타 핸드드립 퍼포먼스' 등 커피와 관련한 각종 대회와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커피와 디저트, 공예·전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240여 개 행사 부스까지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렸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의 전공을 살린 체험 부스가 눈길을 끌었다.



▲강릉커피축제 관련 부스로 장식된 강릉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의 전경이다. 사진= 황보민경

조형예술·디자인학과 서양화 전공이 주관하는 부스 '아토'는 소품 만들기, 캐리커처, 프레스와 같은 접근성 있는 체험활동부터 그림을 전시·판매하는 아트페어의 형식으로 운영되었다. 부스의 벽면은 서양화 전공 학생들이 제작한 창의적이고 개성이 드러나는 엽서, 캔버스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이 부스를 주관한 조형예술·디자인학과 허정원 교수는 "학생들이 순수 예술을 하는 작가의 입장에서 작품 판매와 같이 경제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부스 운영의 가장 큰 목표였다. 디스플레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학생이 호흡을 맞추는 부분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해나갈 수 있는 경험이 되었다."며 성공적인 부스 운영 소감을 밝혔다.



▲서양화 전공 '아토' 부스 벽면에 학생들의 다채롭고 독창적인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사진= 황보민경

조형예술·디자인학과 섬유디자인전공에서는 '강릉원주대학교 LINC3.0 사업단'이라는 이름으로 부스를 운영했다. '강릉원주대학교 LINC3.0 사업단'은 학과 주체로 운영되었던 '아토'와 달리, '더그리다'라는 신생 기업과 전공 재학생의 창업 기업 '위영'과 합심하여 기획하였다. 부스 기획은 '아토'와 마찬가지로 흥미를 끄는 체험활동이 주를 이루었는데, ▲실크프린트 ▲직조 ▲니트와 같이 전공 교과 과정에 있는 작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커피와 관련한 도구들을 드로잉하여 에코백에 프린팅하는 체험은 시작 30분 만에 준비된 가방이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부스 운영에 참여한 엄혜진 학우(조형예술·디자인학과)는 "2학년 과정에 있는 수편기를 활용해 티코스터를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처음 체험해 보는 사람들이 최대한 멋진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배웠던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강릉원주대학교 LINC3.0 사업단'의 총책임자로 나선 조형예술·디자인학과 이혜진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제품 판매를 기획하고, 샘플을 제작했었다. 판매가격을 고민하면서도 무엇이든 이유와 의미가 담겼을 때 값어치가 더해진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 학생이 기억에 남는다. 무엇보다 주말까지 힘 써줬던 학생들에게 감사하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날 '강릉원주대학교 LINC3.0 사업단'은 많은 인파가 몰릴 만큼 부스 운영에 성공을 거두었다.



▲취재진이 '강릉원주대학교 LINC3.0 사업단' 부스에서 직접 티코스터 만들기 체험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황보민경

한편, 우리 대학 외에도 강릉도립대학의 바리스타학과, 가톨릭관동대학교의 언어치료학과에서도 부스 운영에 참가했다. 실내를 가득히 매운 커피향과 함께 다양한 부스가 운영된 '강릉커피축제'는 오전 오후 할 것 없이 매시간 문전성시를 이루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황보민경 기자

강릉 커피 축제 '커피과 즐겁다' 강상국 교수

관광경영학과 강상국 교수와 학생들은 2023 강릉커피축제에서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선정작 '강릉한과 축제'의 로컬콘텐츠 개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커피와 잘 어울리는 강릉의 디저트 '과즐'을 체험 및 홍보하는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진행했다. 강릉 로컬 전통제품인 한과 튀밥을 이용한 한과 도넛 만들기와 과즐 컵케이크 만들기, 그리고 OX 퀴즈와 한과 그림 맞추기 윷놀이 체험으로 한과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광경영학과 강상국 교수와 학생들이 '커피과 즐겁다' 체험부스를 진행하였다. 사진= 강릉원주대 홈페이지

Q. 어느새 15회를 맞은 '강릉커피축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현재 강릉에 커피를 만드는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릉에서 이 지역과 실질적으로 연관이 전혀 없는 커피가 하나의 축제로 만들어지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이처럼 하나의 브랜드화가 되는 것은 관광자원으로써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커피 축제는 앞으로 강릉이 문화로 가져가야 하는 중요한 축제라고 본다.

Q. 현재 강릉은 커피의 도시가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A. 강릉에서 커피가 실질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다와 같은 자원을 가진 강릉에 여유를 찾기 위해 오는 사람들에게 자연환경과 커피가 함께 영향을 끼치며 어우러지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에 더해서 사실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인 부분이 크다. 어느 한 곳이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이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박이추를 비롯해 보헤미안 로스터리, 테라로사 등 전문가들이 강릉에 터를 잡고 교육도 많이 진행함으로써 그 수강생들이 강릉에 커피전문점을 열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받은 커피 혹은 운영과 관련된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고, 이는 '밴드웨건효과'를 잘 가져가고 있는 예시라고 볼 수 있다.

Q. 강릉 커피 축제에서 운영하셨던 '커피과 즐겁다' 부스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강릉 커피 축제는 커피가 메인이긴 하지만, 커피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커피과 즐겁다'는 커피 축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생각하다가 강릉에서 유명한 한과 지역도 있고, 조선 후기 고종이 커피를 즐겨 마신 점과 대한민국의 전통 과자를 연계하여 '레트로'를 떠올려보았다. 커피와 한과의 연결성을 만들어 어떻게 즐길 수 있을지 이야기하려고 노력했다. 사람들에게 커피와 한과를 함께 내놨을 때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신경을 썼고, 외국에서 온 커피와 한국의 한과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를 같이 가져갈 수 있었다는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 기본적으로 한과 자체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먹기 편한 스낵이기도 하고, 일반 가공식품에 비해 그 자체로 가지고 있는 건강함을 보여주는 한과와 커피의 효능이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한과를 커피 축제에 소개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 신선하고 새로운 '아포카토'라는 메뉴가 만들어진 것처럼 '커피와 한과'가 하나의 세트메뉴로서 제작되면 좋을 것 같다.

Q. 다음에도 커피 축제에 부스를 기획하게 되면 어떤 주제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A. 현재의 커피 축제는 커피의 원산지에 대한 매력을 보여주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 우리가 대부분 마시는 아라비카, 에티오피아 등 커피는 지역성과 문화를 많이 띄고 있다. 커피를 어느 지역에서 마시냐에 따라 커피 제조 방법과 마시는 방식도 다르다. 이러한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른 커피의 문화와 방법과 방식을 알리는 부스를 만들어서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공유하는 부스를 운영해보고 싶다.

Q. 강릉 커피 축제 이외에도 눈여겨 보고 계시는 축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A. 현재 강릉의 축제는 누들, 와인 축제 등 대부분 음식을 사용한 축제들이 많다. 다른 지역은 이순신, 이황, 장보고 등 각 지역의 인물을 주제로 한 축제가 많이 있는데, 강릉은 율곡이이 선생과 오죽헌, 그리고 신사임당을 기반으로 하여 강릉을 대표할 만한 축제 문화로 발돋움한다면 좋을 것 같다. 한 인물에 대해 한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안다는 것은 자산으로써의 가치가 큰 것이기 때문에, 현시대에 맞게 가져가면서 커피 축제뿐만 아니라 강릉의 다양한 역사 및 문화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Q. 학생들이 축제에 참여할 때 어떻게 즐기는 것이 좋을까요?

A. 우선 그 축제에 관한 내용을 알고 가는 것이 좋다. 단순하게 가서 현상에 보이는 것을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닌, 축제의 성장 과정과 그 축제의 의미, 사람들은 축제를 볼 때 무엇을 보고 즐기는지, 축제는 어떤 것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알고 가서 보는 것이 좋다. 또한, 지역의 정체성을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는지, 다른 축제와 차별화된 기획 방향을 함께 보면 좋다. 그렇게 된다면 축제를 즐길 뿐 아니라 추후 기획도 할 수 있게끔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 같다.

김태현 기자

성찰에 대한 조언, 졸업생 송신규 작가를 만나다.

올해 하반기 국제아트페어인 KIAF, Frieze 등 글로벌 규모의 예술행사가 한국에 상륙한 데 이어, 지난 9월부터 10월 말까지 한 달간 '강릉국제아트페스티벌 GIAF'가 열렸다. 강릉을 지리적 기반으로 개최한 'GIAF'에서는 홍순명, 임호경, 송신규, 티노세갈, 프란시스알리스 등 국내 작가를 포함한 총 13인의 다국적 작가들이 전시에 참여하였다. 전시의 주제이자 페스티벌제는 〈서유록〉이다. 〈서유록〉은 강릉에 살던 강릉 김씨라는 인물이 52세가 되던 해인 1913년 서울로 떠났다가 다시 강릉으로 돌아오기까지의 한글 기록이며, 강릉 김씨의 여정과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예술을 매개로 강릉에서의 삶과 강릉의 특징을 담은 공간을 이용해 전시가 기획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GIAF 참여 작가이자 강릉원주대학교 졸업생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는 작가 송신규를 만나보았다.



▲청년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송신규' 사진= 송신규

Q. 현재 작가로서의 활동이 궁금합니다.

A. "지금은 레지던시를 통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2018년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예술거주프로그램인 레지던시를 활용해서 작업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오고 있다. 레지던시 공모에 지원하고 그 장소에 맞춰서 진행하는 작업이 대부분이다. 코로나 이전까지는 대만에서 작업을 했고, 그 이후에는 원주의 토지문화재단, 전남 순천, 양구의 박수근 미술관까지 레지던시 작업을 이어 나가고 있고 계속 작업하고 사유하는 시간을 가져왔다. 지금은 춘천의 예술촌에서 2년째 작업을 하고 있다. 서른넷이라는 나이로 청년 작가로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 공모와 지원 사업에 많이 도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6번째 개인전을 기획했다."

Q. GIAF에서의 작품의 이야기와 작업 과정은 어땠나요?

A. "3월에 진행된 공모에 참여해서 4월부터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무엇보다 강릉이라는 공간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많이 흥미가 갔었다. 본래 고향이 춘천이지만, 부모님 영향 아래의 태생적인 고향보다 대학 생활을 했던 강릉이 더욱 내 고향같이 느껴졌다. 그림이 정말 좋아서 온 장소이고, 전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민했을 때가 지금의 그림 그리는 송신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작업보다는 지역 현장 답사를 통해서 작업했다. 제가 20대에 보았던 강릉과 많이 변해 있었다. 개발로 인해서 사라진 장소들, 낙후된 공간들을 답사하면서 인간의 정서를 느껴가며 작품을 준비했다. 이제는 발길이 끊긴 동부시장에서 버려진 사물들, 빨래판, 스위치, 뜯긴 벽지, 오래된 전단지 같은 것을 두고 재해석한 사물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물감을 계속 얹어서 시간의 퇴적층을 표현해 보고자 했다."



▲강릉시립미술관에서 작품 <볼 수 없는 것>을 디스플레이하는 송신규 작가의 모습이다. 사진= 송신규

Q. 현재 우리 대학에서 서양화 1학년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직접 후배를 양성하는 기분은 어떠신가요?

A. "제가 학생 때에는 답답한 것이 많았다. 나름대로 스스로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다. 선배분들도 있었지만, 기수의 차이가 커서 연결 다리가 끊긴 기분도 들고, 외로움도 느꼈었다. 지금 와서는 회화작가가 외로운 길이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학생들은 더 많이 보고 주변에서 영향도 많이 받았으면 한다. 작품의 바탕을 구축하는 것은 결국엔 나의 관심사이자 철학을 찾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과제물을 많이 내주기도 하고, 스스로 질문하기도 한다.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가 학생 때 답답함을 느꼈던 부분을 긁어줄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가고 싶다."

Q.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A. "사실 어느 작가에게 물어도 답변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한다. 불확실하다. 그래도 다음에는 제주도에서 작업해 보고싶다. 그리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가져볼까 한다. 사람들과 인터뷰하고 작업하다 보면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어디든지 가고자 한다. 꼭 돈이 있어서 안정을 얻기보다는 내 작업에 있어서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낀다면 그 뒤로 따라오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제 향후 계획은 저에게 몰입할 수 있는 장소에 가는 것이다. 그게 작업실이든, 어떠한 색다른 지역이든, 적어도 해외를 나간다면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Q.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계신 점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졸업 후에 진로 고민이 많을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진짜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어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답을 핸드폰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노하우고, 이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오히려 결국 뇌를 더 단순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되, 그걸 더 전문적으로 해낼 수 있게끔 해나갔으면 좋겠다. 제가 학부생일 때는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던 것 같다. 낭비하는 시간을 단축하고 그림에 열중하려고. 그리고 지금도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서 이런저런 공모에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나 공모 같은 기회를 잘 찾아서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황보민경 기자

지역 발전에 중심이 되는 강릉원주대학교

지역소멸에 대처하는 강릉원주대학교

현재 우리 대학이 위치한 강원도는 지역 소멸의 위기와 맞닿아있다. 강원도 내 인구가 10년 새 최대폭으로 감소해 153만 3,356명으로 집계되었고 '2023년 4월 국내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4월 강원도 순이동(전입-전출)인구는 1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4월 958명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858명이나 줄어든 것이다.

지역 정주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양하나 가장 큰 요인은 강원도 내 일자리 부족으로 보인다. 여전히 강원도 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정책 중 하나인 2030 강원 액화수소 산업은 2020년 7월 기획재정부의 그린뉴딜 추진 전략과 더불어 수소 사업 관련 65.9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이룩하고자 했다. 2050 탄소 중립과 관련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소 사업에 대한 출사표로 보였으나, 아직 전문인력 양성과 더불어 기술력과 정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의 평가이다.

위의 두 문제인 지역 소멸과 해결책으로 내세운 수소 산업 전문화를 통관할 수 있는 해안으로 RIS 사업 내 우리 학교의 '스마트수소에너지사업단'이 제시되었다.

RIS 사업이란

교육부는 2022년 1월 28일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의 주요 내용은 2021년에 선정된 지역혁신플랫폼(충북, 울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2개의 플랫폼을 추가로 선정하여 2,440억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어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방향은 첫째, '지역혁신플랫폼'이 지역 내 취·창업 지원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능 강화를 지원하며, 그간 쌓아온 대학 교육혁신의 성과가 지역 내 취·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혁신의 핵심 축으로서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지역혁신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위 사업의 2개의 추가 플랫폼 중 '강원지역혁신플랫폼'이 추가되었다.

강원지역혁신플랫폼이란

'강원지역혁신플랫폼'은 지방소멸 위기를 지역 스스로가 해결하고자 도내 15개 대학, 60개 지역혁신기관이 모인 플랫폼이다. '데이터 중심 강원 지역산업 대전환'을 비전으로 내세운 해당 플랫폼은 핵심 인재 양성, 취업률 증가, 핵심 기업 성장, 청년 정주율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정밀의료,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수소에너지 3가지를 핵심 분야로 선정하고, 강원LRS공유대학 교육혁신 플랫폼 구축, 강원 데이터 밸리 조성, 강원 특별자치도 산업혁신 플랫폼 구축, 지역 정주 동행 플랫폼 구축 총 4가지 과정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각 사업은 총괄·중심 대학인 강원대학교가 '정밀의료사업단'을, 중심대학인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와 우리 대학이 '디지털헬스케어사업단'과 '스마트수소에너지사업단'을 담당한다. 세 대학을 포함한 15개의 대학은 각 지역의 혁신기관과 연결된다. 대학에서 혁신기관으로 채용 연계-마이크로 계약학과 트랙, 데이터 산업전환을 지원하고, 혁신기관에서 대학으로 공공 데이터 개방, 실전 문제 공유, 산업체 겸임교원, 직무교육 개방을 지원한다.





스마트수소에너지사업단을 통한 인재 양성

우리 대학이 중심대학으로 참여하는 '스마트수소에너지사업단'은 스마트 수소와 관련한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내 거주 인구를 늘리고 혁신 인재를 기업에 배출해 내는 걸 말한다.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사업에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중이나, 이 또한 인재 양성 사업이 단단하게 밑받침되었을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재 양성은 (1) 융합 전공 구축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 (2) 계약학과 신설, (3) 비교과 과정(캡스톤디자인 및 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이루어진다. (1)이 이루어져야 이후 (2),(3)과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인 융합 전공 구축 및 공동 교육과정 운영은 우리 대학을 포함한 6개의 대학이 참여하며 56개의 학과가 참여한다. 스마트수소에너지 융합 전공은 대학에 부·복수 전공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강원지역혁신플랫폼 참여대학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수소에너지 생산·활용 트랙, 수소에너지 신소재 트랙으로 구성되며 트랙별 진출 분야 및 직무에 맞춘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직무, 경험,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과정을 지향하며 지역 그리고 산업체와 연계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수소에너지 전문가 양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운영에 관해서는 '강원LRS공유대학'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존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학번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로그인이 가능하다. 모집 기간 내 융합 전공을 신청 후 선발이 이루어지면 '해람인의 e참뜰'과 유사한 사이트 내에서 수업을 청강할 수 있다. 수업을 청강하는 데 있어서 학과 제한은 없다.

스마트수소에너지 사업단 인재 양성 프로그램 참여 자격 및 혜택

'스마트수소에너지사업단'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참여대학 재학생 중 2학기 이상 수료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융합 전공 이수자 중 혁신 인재로 선발된 학생의 경우,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비인 혁신 인재 지원금이 3학점당 50만 원씩 학기당 최대 200만 원(계절학기 포함)까지 지급된다.

또한, 강원 특별자치도 내 에너지 관련 기업과 채용을 전제로 하는 기업요구형 전공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졸업 후 관련 기업 취업, 현장실습, 기업담당자와 1:1 멘토링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최원열 스마트수소에너지 사업단장은 "사업 내 각 분야 모두 중요하지만, 인재 양성 분야를 제일 중요하다1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지역에 종주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진행 중인 융합 전공 수업 이외에도 기업체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통해 수강생들을 기업으로 진출시키고자 학생들의 취업은 물론, 창업을 위한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캡스톤디자인'을 통해 학생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을 실현하고 창업 아이템에 있어 씨드머니를 지원하는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 진행될 우리 사업이 초기인 지금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5년이라는 한정적인 기한이 아니라 10년, 20년 안에 영동지역의 메카로서 '수소에너지'가 자리 잡길 희망합니다. 그러나 아직 시장의 성숙도가 낮은 만큼 우리 학생들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길 바랍니다."라고 인재 양성에 대한 중요성과 사업 진척에 대한 희망을 말했다.

김건 기자



문 학 의 길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소설의 결말

국어국문학과 김천겸

아쉽게도 첫장은 찢어져 볼 수 없는 한 권의 책을
첫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 하지 않으며
차근차근 읽어본다.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처음 보는 이야기에 설레면서
내 이야기 같은 지루함

점점 두 권의 소설이 한 권의 이야기가 될 때까지
찢어질지 모르고, 끝날지 모르는
이 아름다운 한 편의 소설에서
마지막 문장 연습해 본다.

"다음 이야기는 첫 장부터 같이 만들자."

한 컷 속으로

시켜줘! 우리 대학교 명예 소방관


▲국어국문학과 신민기

2023년 10월 4일 오후 17시 40분쯤 강릉원주대 후문에 위치하는 피시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의 원인은 제대로 꺼지지 않은 담뱃불이었다. 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있던 신민기 학우(국어국문학과)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카운터에 있던 소화기로 초기대응을 하기 시작했다. 화재를 진압한 신민기 학우는 빠르게 현장을 빠져나왔다. 이후 신고받고 소방차가 출발했지만 이미 화재 현장은 상황이 종료된 후였다. 이에 피시방 측에서는 '에브리타임'을 통해 신민기 학우를 찾았고, 심심한 사례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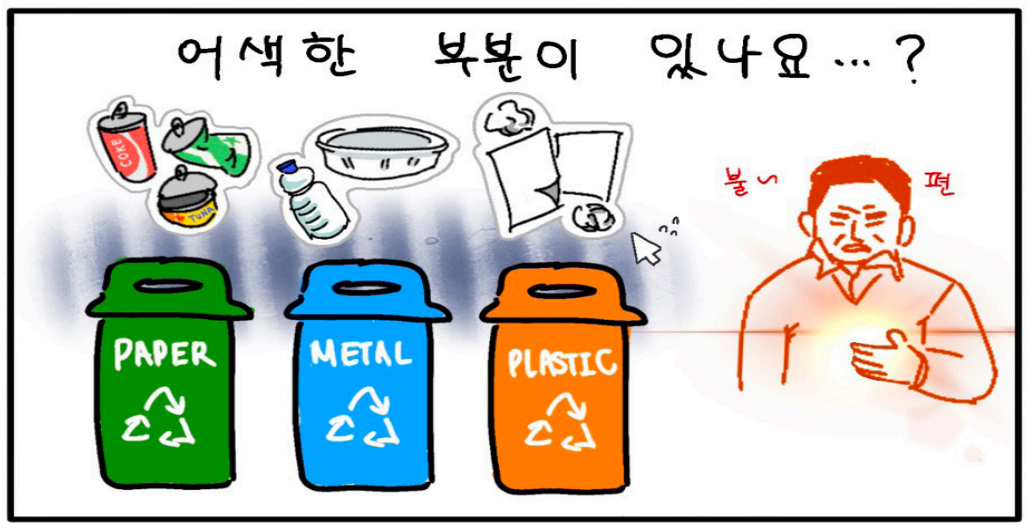
신민기 학우는 처음 화재 현장을 발견했을 때 "평소 학군단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빠르게 소화기를 찾은 다음 침착하게 화재 현장을 진압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연기로 인해 눈과 코를 크게 다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긴장감이 들었지만 이내 불길이 사그라들어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화재 현장은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이러한 화재의 원인은 대부분이 담뱃불이니 제대로 꺼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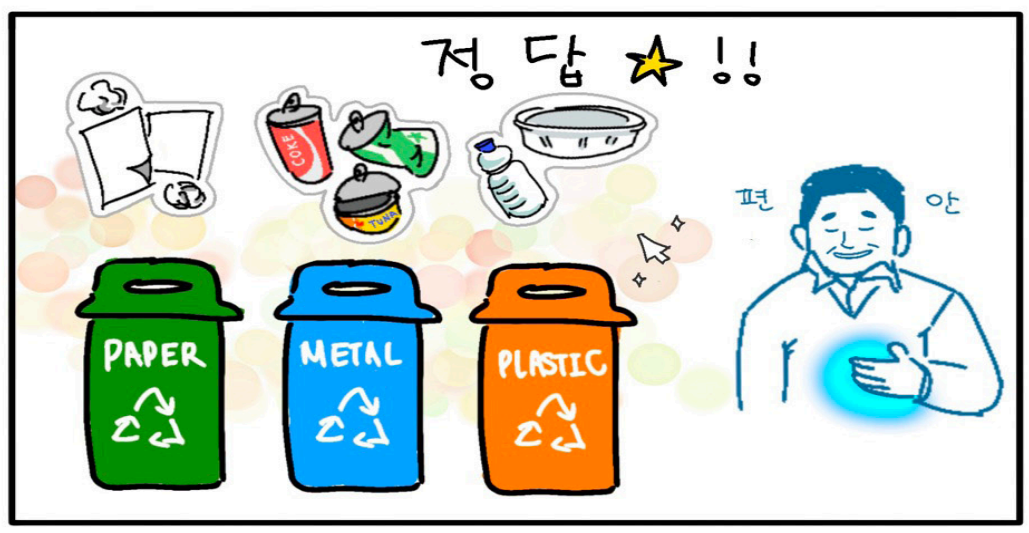
화재의 원인은 대부분 담뱃불이라는 말에 본 기자도 동의하는 바이다. 흡연하고 난 후 담뱃불을 똑바로 꺼서 우발적 화재를 예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도현 기자

틀린 분리수거 찾기

국어국문학과 황보민경





이렇게나 간단한 분리수거!
당신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명 석

상대적 빈곤

환경조경학과 전재강

이 시대에는 상대적 빈곤의 그림자에 갇혀 자신의 가치를 물질적인 것으로 측정하는 경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갖지 못한 것을 보며 마음이 불안해지고,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규정하는 것처럼 느끼기 쉽다. 이러한 감정은 우리의 생활과 마음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종종 소유물이나 외부적인 성취에 의해 우리 자신을 정의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더 큰 집, 비싼 차, 높은 브랜드가치의 상품을 얻기 위한 노력이 일상이 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치를 물질적인 성취에 의해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종종 소유물의 양과 질을 통해 사회적 지위와 성공을 측정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로 우리는 지속적인 경쟁과 비교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인 추구가 지나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작은 순간들과 소소한 기쁨이 무시되고, 끊임없는 소비와 비교 속에서는 찾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잊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끔은 일상에서 조금 멀어져, 소유물이 아닌 가치 있는 경험과 관계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큰 집이나 비싼 차가 아니라, 가족과 친구와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나, 자연 속에서의 평온한 순간이 얼마나 더 큰 가치를 지닌 것인지 깨닫게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상대적 빈곤의 시대라고 해도, 우리는 자신만의 정의와 가치관을 찾아가며 물질적인 성취만큼이나 소중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더 깊은 사유와 내적 성장을 추구하며,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더 관대하고 이해심 있는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과 타인을 포함하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서로 영감을 주고받으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더 풍요로운 삶을 창조해 나갈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상대적 빈곤의 그림자를 벗어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